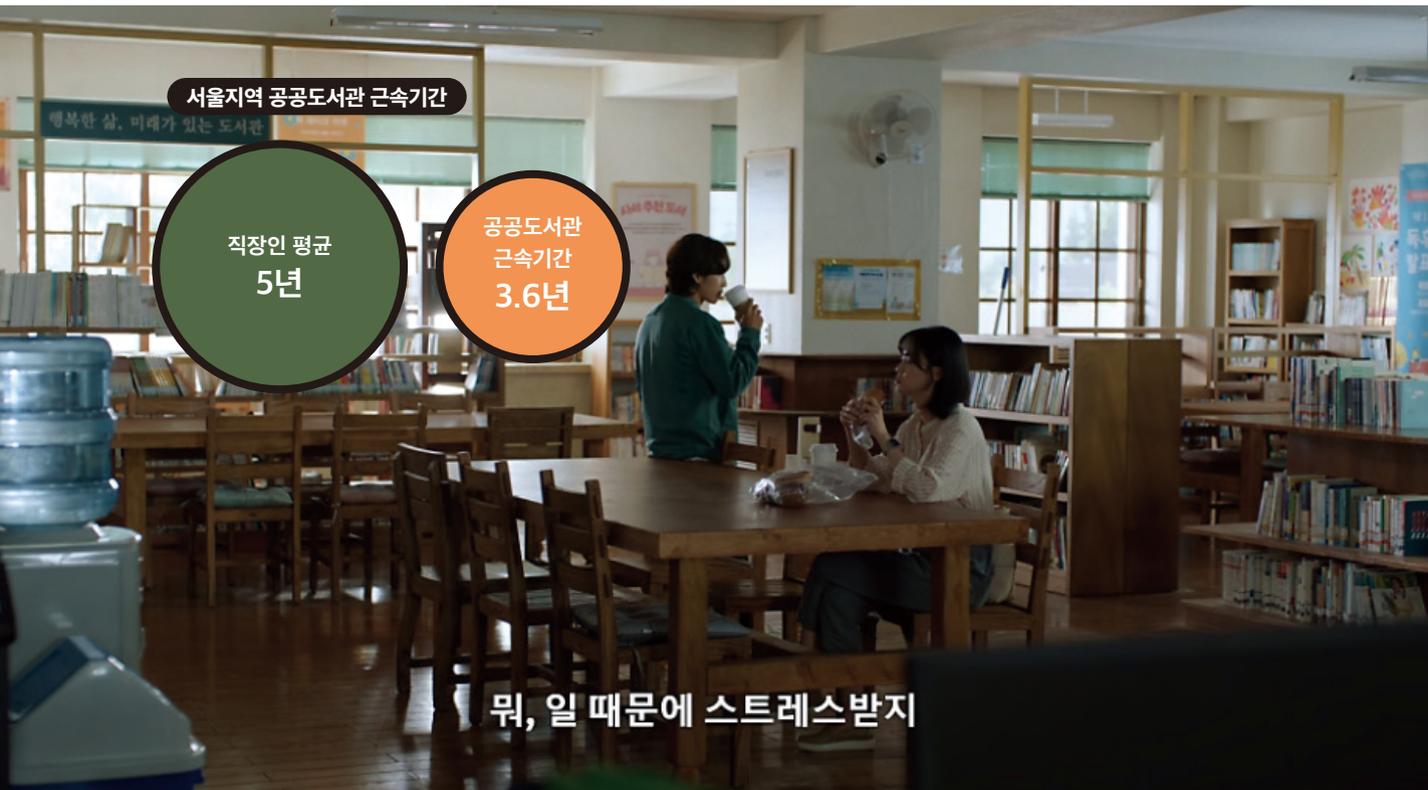


책 속에 묻힌 사서의 눈물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속 도서관 사서의 노동환경

글 편집실



인적이 드문 동네 '안곡'의 도서관. 이곳의 책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천재 사서 안대범(임시완)의 손을 거쳐 간다. 대범은 도서 대출과 반납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존재다. 파손된 책을 수선하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실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 공공시설인 만큼 '진상'을 상대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도서관 영업 종료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깨워도 미동 없는 봄(김설현) 앞에서 대범은 난감해한다.

도서관의 A부터 Z까지 책임지는 대범의 모습은 '책 읽으며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사서에 대한 편견을 뒤집는다. 실제 사서에게 흔히 나타나는 직업병으로는 서고 정리 등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많다. 코로나 이후 인력감소로 인한 노동강도 약화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사서도 늘어났다. 도서관은 우리가 매일 무료로 편하게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는 곳이지만, 정작 사서의 노동환경은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

사서 고생해서 ‘사서’

도서관 서비스의 질은 사서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 기획은 물론 자료 수집, 장서 점검, 정보서비스 제공 등 대부분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다. 그러나 사서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2019년 서울도서관이 발표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서 중 약 77%가 비정규직이거나, 비정규직을 경험해 본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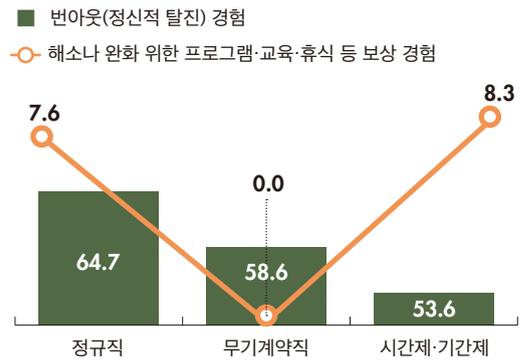
한편, 사서의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할 시점에 공공도서관 정책은 퇴보 중이다. 서울시는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가 하면 전국 학교 도서관에 사서 전문인력이 배치된 곳이 절반도 안 되었던 2022년, 사서교사를 증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서들은 대체노동자가 없는 상황에서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

노동자의 약 70%가 여성이었으며, 67.9%가 이용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용객과 대면하는 업무가 많은 만큼 폭언·성희롱·괴롭힘 등의 감정노동에도 시달렸다. 게다가 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서는 위탁처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 임금 저하를 걱정해야 했다. 전문 직종임에도 저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서 고생해서 사서’라는 말이 생겨났다.

도서관을 떠나는 사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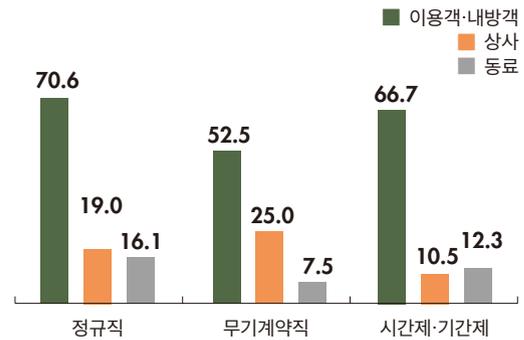
2023년에는 공공도서관 이용객 수가 15% 증가하고, 올여름은 열대야로 도서관이 무더위 쉼터 역할마저 하며 이용객 수는 더욱 급증했다. 그런데도 시간제와 초단시간 노동자들로 채워진 공공도서관의 사서 증원은 여전히 먼 이야기이다. 사서들이 겪는 대표적인 근골격계질환은 바코드 작업이 불러온 손목건초염,

업무상 괴롭힘으로 번아웃 및 보상 경험 (단위 : %)



자료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2019)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폭언 경험 (단위 : %)



자료 :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2019)

잡은 서고 정리로 인한 어깨충돌증후군, 책 먼지가 일으키는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등이 있다. 맨손으로 책을 정리하는 사서에게 책장에 베인 상처를 지니는 것은 일상이다. 성과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구 축제, 동 축제 등에도 참여해야 한다. 팬데믹 이후 늘어난 업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이용객 역시 점점 고도화된 서비스를 요구한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4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서의 업무량과 스트레스 정도를 말해주고 있다.

도서관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사서 역시 ‘쉼’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전, 꽂혀있는 책에 닿은 사서의 손길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